

전산기술 교류회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효율화를 추구

글 정윤희 편집장 unigood@paran.com

철강산업은 모든 산업에 소재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이다. 철강 제품은 형강, 봉강, 철근,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착색아연도강판, 석도강판, 강관 등 제조기술에 따라 쓰이는 용도 또한 다양하다. 이집트 시대에는 철도 회소가치가 있어 장신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중 열연철강과 냉연철강을 판매하는 기업의 전산모임이 있다.

열연철과 냉연철을 유통하는 기업의 전산실장 모임

엄준항 회장(한일철강 전산팀 부장)을 만나 모임 취지와 운영 내용을 들어봤다.

철강전산협회 창립은 1990년 11월, 문배철강·대동스틸·경안실업(현재 포스틸)·한일철강 등 전산실장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기업들은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을 가공하여 열연철강을 유통하는 철강 전문업체다. 이후에는 냉연철강을 판매하는 창하철강, 대창철강, 금강철강 등의 전

◀ 엄준항 회장



▲ 한일철강 전산팀

산실장들도 합류해 전산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1990년에 포스데이터를 창립하면서 포스코의 주요 철강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전산업무를 지원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모임을 만든 계기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요. 같은 업종이다 보니 정보교환이 목적입니다. 필요하면 전산실을 찾아가서 시스템 도입에 있어 부딪히는 문제점, 실패사례 등 경험을 스스럼없이 나눕니다.”

철강전산협회 회원사들은 대부분 IBM AS 400을 사용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환경과 인원규모가 비슷해 경험공유가 더 활발하다.

엄준항 회장은 회원사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모임을 개최하고, 봄·가을로 आय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매월 모임을 개최할 때 전산실장뿐만 아니라 전산실 직원들도 다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회원 간에도 유대관계가 끈끈하다.

임원은 철강전산협회 창립멤버인 박흥규 대동스틸 전산실장이고 문으로 있으며, 총무는 한일철강 전산팀 노용호 과장이 맡고 있다.

5월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정보보호 전략 및 보안시스템 구축 방안 세미나와 바다낚시 행사를 갖는다.

엄준항 회장은 “회원사들이 전산 정보교류를 위해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협력사와의 윈윈 관계를 위해서 회원사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Users

